

07

미얀마 양곤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No. 140/A, Than Lwin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1-510366
Fax. +95-1-526381
E-mail. myanmar@jipyong.com

Main Contacts

미얀마 양곤 사무소
장성 수석자문위원
E-mail. schang@jipyong.com
Tel. +95-94-2013-1641

본사 미얀마팀
정철 변호사
E-mail. cjeong@jipyong.com
Tel. +82-2-6200-1753

설립일

2012. 11. 27.



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지평은 2012년 한국 로펌 중 최초로 미얀마 양곤에 사무소(Jipyong Myanmar Limited)를 설립하여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한국회계사 및 자문위원을 파견하고 다수의 현지 변호사 4명과 회계사 2명을 채용하여 미얀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A, 금융, 자원·에너지, 부동산·인프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평 본사 미얀마팀도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하여 다수의 업무 실적을 축적해 왔습니다.

지평 미얀마 사무소는 지난 5년간 한국기업을 비롯하여,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기업에 각종 법률/조세 자문을 제공하며 다수의 실무경험을 축적하여 왔고, 이와 같은 실무경험과 다년간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획의 땅 미얀마에서 최고의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성 수석자문위원/ 사무소장

-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 ㈜유니와이드 미국법인 기획이사(산호세)
- ㈜옥성전자 상무이사
- 일본 Link-Up사 상무이사
- 일본 ㈜Office24 국제업무 고문역
- 법무법인 지평 수석자문위원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고세훈 변호사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삼성테크윈 경영지원팀
- 미국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Texas Instruments Korea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수석변호사

오규창 외국변호사(미국)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영학과 (B.A.)
- 미국 Washington Univ. in St. Louis 로스쿨 (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STX
- 삼성전자(㈜)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외국변호사

나민형 공인회계사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제3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 런던정경대 국제개발관리 석사
- POSCO ELECTRICAL STEEL INDIA (인도, 푸네) 관리 부장
- 코라오홀딩스(라오스 비엔티안) 전략담당 이사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공인회계사

Maung Maung Aung 외국변호사(미얀마)

- 미얀마 University of Yangon (B.Sc.)
- 미얀마 University of Yangon (D.B.L.)
- 미얀마 Yangon Institute of Economics (M.B.A.)
- 미얀마 Yangon University of Distance Education (LL.B.)
- 미얀마 변호사(1988년)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시니어 외국변호사

Thant Zin Tun 외국변호사(미얀마)

- 미얀마 Mandalay University (LL.B.)
- 미얀마 University of Yangon (D.B.L.)
- Advocate & Pleader (H.G.P.)
- Higher grade pleader, Pioneer Law Firm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외국변호사

본사 미얀마팀 변호사 및 전문가

양영태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수석파트너, Managing Partner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10년)
- IFLR, Leading Lawyer 선정(2014-2017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San San Yi 공인회계사(미얀마)

- 미얀마 University of Yangon (D.B.L.)
- 미얀마 Institute of Economic in Yangon (B.Com.(Q))
- Auditor, WIN THIN& Associates
- Audit Manager (Taxation, External & Financial Audit), WIN THIN& Associates
- Audit Partner (Taxation, Due Diligence, External & Financial Audit), WIN THIN& Associates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시니어 공인회계사

Myat Myat Thet 공인회계사(미얀마)

- 미얀마 Yangon University of Economics (B.Com., 2004)
- 미얀마 Yangon University (D.B.L., 2006)
- CPA Apprentice, WIN THIN& Associates Audit Firm
- Audit Officer,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the Union (OAGU)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 시니어 공인회계사

곽은비 변호사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승혁 공인회계사/ 세무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경영학)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세법 연구과정 수료
- 제31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안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eventhal School of Accounting (Master of Business Taxation)
- 'M&A 세법 실무' 저자
- 법무법인 지평 공인회계사

이공형 전문위원

- 일본 아지야대학 국제관계학부 국제관계학과 졸업
- ㈜제일은행 동경지점 근무
- 중소기업은행 동경지점 근무
-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일본 담당)



주요 업무 분야

M&A, 인프라 · 에너지 · 자원 투자, 건설 · 부동산개발, 금융회사 진출, 필라와경제특구 및 MIC 투자승인 취득, 회계 및 세무 자문, 조세 불복, 노동, IP, 소송 등

주요 실적

LG상사를 대리하여 미얀마 시멘트 사업 합작투자 자문

LG상사를 대리하여 미얀마 회사(블루다이아몬드)와의 시멘트 사업에 대한 합작투자 관련 자문 제공. LG상사 합작투자 법인은 미얀마에서 한국 투자자로서는 처음으로 시멘트 생산 공장을 준공하였음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미얀마 외국은행 지점 라이선스 취득 자문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미얀마 현지 지점 설립 관련 라이선스 입찰 업무를 수행. 신한은행은 한국계 은행 최초로 미얀마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었음

- 미얀마 현지 목재 제조회사(미얀마 산림부가 합작투자한 회사)의 지분양수도 관련 법률/ 조세 실사, 합작계약서 관련 업무 자문
- 미얀마 현지 건설장비 서비스 회사(미얀마 철도운송부가 합작투자한 회사)의 지분양수도 관련 법률/ 조세 실사, 합작계약서 관련 업무 자문
- 인천국제공항공사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자문
- 서부발전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미얀마 발전사업 관련 거래구조 검토,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정부와의 협상 등 관련 자문
- 태국 투자자를 대리하여 미얀마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법률실사 및 투자구조 관련 법률/ 조세 자문
- 미얀마 상수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IPP) 관련 자문
- LG상사를 대리하여 미얀마 시멘트 플랜트 법률실사 및 합작투자 자문
- 한화(무역)을 대리하여 미얀마 주상복합 프로젝트 자문
- 대우 아마라 호텔 프로젝트 관련 합작투자계약, 호텔 운영 관련 계약 관련 자문
- BS캐피탈(변경 후 상호 BNK 캐피탈), 우리은행, IBK캐피탈, NH은행의 소액금융대출회사 설립 및 라이선스 취득 업무
- 시멘트(Y사), 식용유(C사), 전선(K사, L사), 전자부품(M사) 등 제조업 및 운송(Y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필라와경제특구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 및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 진출 법률자문

롯데그룹을 대리하여 미얀마 음료업체 MGSB 인수 자문

롯데칠성음료를 대리하여 미얀마 음료업체 Myanmar Golden Star Beverage(MGSB, 미얀마 3대음료회사) 인수 관련 법률검토, 실사 및 자산양수도계약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롯데칠성음료는 MGSB와 합작투자해 LOTTE-MGS Beverage를 설립하여 미얀마 음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음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미얀마 국영기업 합작투자 자문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입찰 투자제안서 검토, 투자구조 검토,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법인 설립 및 MIC 투자승인 등 업무를 수행. CJ대한통운은 미얀마 정부의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미얀마 육상운송청과 합작법인 CJ KOREA EXPRESS-RT를 설립함으로써 미얀마에서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미얀마 양곤 사무소의 강점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는 다수의 한국 전문가들이 현지에 상주하며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및 회계감사(협력사 포함)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비한국계 고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사무소장 인터뷰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장성 수석자문위원



언제 미얀마 사무소에 부임했는지?

미국이 2012년 7월에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2년 8월 2일에 부임하여 만 5년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사무소의 특징과 강점은?

지평 해외사무소 중 가장 많은 4명의 한국프로(한국 변호사, 미국변호사, 한국회계사, 자문위원)와 6명의 미얀마프로 및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률과 회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고객의 니즈와 편리성을 우선으로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무소가 주로 하는 업무는?

기업의 미얀마 진출부터 영입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각종 사업분야에 대한 리서치, 법인 설립, 투자허가, 기타 인 · 허가 취득, 종업원 고용 등 법률자문과 회계 · 기장, 세무대리, 법인세 신고, 조세 불복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문 뿐만 아니라, M&A, 소송 등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무소의 주요 고객들은 어떤 업종들인지?

거의 모든 업종에 해당되나, 은행지점 및 대표사무소부터 시작하여 소액금융업인 MFI, 건설,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기업 뿐 아니라 지난 5년간 당 사무소 고객의 30% 가량이 일본 고객이며, 이중 일본의 대형상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망은?

2016년 말 미국 경제제재로부터 완전 해제되어,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투자열기가 높고, 연 경제성장률도 7.5% 이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은 현재 약 350여 개사가 진출하여 있고, 향후에도 건설 및 금융업 중심으로 추가 진출이 예상됩니다.



미얀마 사무소 향후 전략은?

미얀마 내의 진출 정보를 비롯하여 법률, 세무 · 회계에 이르기까지 지평 미얀마 사무소에 오면 모든 Solution이 있다는 평판을 쌓아 미얀마 제1의 로펌, 나아가 동남아 제1의 전문가 집단이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들은?

일본의 대형상사를 비롯하여 다수 일본기업의 법인 설립부터 법률자문, 세무 · 회계 자문 업무를 하고 있는 일, 미얀마에서 한국계 최초의 은행 지점 허가를 받았던 일, 대사관과 공조하여 불가능한 정부허가를 이끌어 냈던 일 등 해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보람이 많습니다.



MJTD Sato Kan



델라와SEZ(경제특구)에 관해 말하면?

미얀마 양곤 근교에서 델라와SEZ(경제특구)를 현지 개발회사 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td.(MJTD)를 통해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Zone A(405 ha) 개발에 착수하여 2015년 9월부터 조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17년 2월부터는 Zone B 제1기(101 ha) 개발에 착수하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17개국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87개 회사가 델라와SEZ 투자를 결정하여(한국기업 6개사 포함), 69개 회사가 공장 건설을 개시하고 34개 회사가 조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본인 소개 및 업무 내용을 소개하면?

저는 마루베니 주식회사에서 1997년부터 동남아시아 일대의 부동산개발에 종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주인 마루베니로부터 2014년 9월에 MJTD에 파견 중이며 미얀마에 약 3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담당 이사로서 미얀마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날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평과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델라와SEZ를 판매 개시하고 반년 정도 경과한 후 문득 한국기업으로부터의 상담 건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시멘트 제조회사의 미얀마 SEZ법에 따른 투자인가 신청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평 미얀마 장성 사무소장님과 논의해 보니 한국기업에게 델라와SEZ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장성 사무소장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 한국기업에 미얀마 및 델라와SEZ를 소개하기 위해 서울에서 2회, 양곤에서 1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4월 서울에서 개최한 세미나의 참가자는 160명으로 성황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기업의 6개사가 델라와 투자를 결정한 것은 지평 미얀마 장성 사무소장님의 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평과 협업한 일본업체 사례는?

일본업체인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무노이나키 주식회사에 대해 미얀마 SEZ법에 따른 투자인가신청 업무를 협업하였습니다.

지평과 함께 업무를 진행한 소감은?

미얀마는 한국기업을 포함한 세계 곳곳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평은 오랫동안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미얀마 관련 법률·세무·회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진정한 프로로서 외국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에게 법무·세무·회계를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평 미얀마 장성 사무소장님을 필두로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일어에 능통한 스태프가 많고 친절한 자세도 외국투자자로부터 신뢰를 모으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미얀마에서 지평에 거는 기대는?

미얀마 델라와SEZ에 대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치에 더욱 더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Myarnak Ryosuke Kobayashi



지평과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미얀마 진출에 있어 회사설립, 등기방법, 미얀마 법률에 대해 아는 바가 전무하여 델라와에 있는 OSSC에 근무하는 JICA 분과 JETRO에서 근무하며 미얀마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분에게 상담을 했더니 지평을 소개해 주신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진출시 어려웠던 점은?

미얀마의 법률 자체가 오래된 법률로 애매하며 관공서의 대응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결코 좋은 대응이라고 할 수 없어 회사를 설립해 나가는 것에 있어 고생을 하고 있는 진출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였으나, 그러한 경우에 지평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제2공장을 건설 예정인데 관련 증자 절차, 투자허가를 위한 신청, 절차도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공장건설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얀마에서 지평에 거는 기대는?

미얀마의 법률과 세제가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해마다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내용이 업무에 종사하는 일선까지 전달되는 것이 늦고



또한 개정된 것도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오해를 초래해 업무가 지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법률의 안내와 미얀마에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주의점에 대해 계속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평에 하고 싶은 말은?

미얀마에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있어 어려운 점과 분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얀마에서 선구자로서의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최대한 무기로 하여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고 활약하시기를 기원합니다.